

외부세계 존재에 대한 무어 논증 비판

박제철*

주제분류 형이상학, 인식론, 분석철학

주요어 무어, 외부세계 회의주의, 논증, 외부세계, 물질

요약문

본 논문에서 필자는 외부세계에 대한 회의론을 옹호하고, 이를 바탕으로 외부세계 존재에 대한 무어의 논증을 비판하고자 한다. 외부세계에 대한 회의론이란, 우리 정신에 펼쳐지는 세계가 어쩌면 꿈일 수도 있다는 철학적 입장이다. 비상식적인 이러한 입장은 이상하게도 철학사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금방 떠오르는 철학자만 해도, 데카르트, 라이프니츠, 버클리, 칸트 등이 이러한 생각을 제기하고 있다. 이들의 이름으로 외부세계에 대한 회의론이 정당화될 수는 없지만, 이 이름들이 갖는 무게는 우리로 하여금 이러한 회의론을 쉽게 외면해 버릴 수는 없도록 만든다. 본 논문에서 필자는 어떤 모델을 제공함으로써, 이처럼 외부세계 회의론이 쉽게 반박될 수 있는 이론이 아님을 보이고자 한다. 이것이 본 논문의 첫 번째 목적이다.

논문의 두 번째 목적은 이러한 회의론에 대한 비판으로 이해될 수 있는 무어의 논증을 살펴보고, 이를 반박하는 것이다. 무어는 외부세계를 증명하고자 한다. 즉 우리가 꿈을 꾸고 있을 수도 있다는 주장을 반박하고자 한다. 필자는 무어의 논증에 동원되는 몇 가지 개념장치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를 바탕으로 무어 논증을 분석함으로써, 그의 외부세계 존재 증명이 어떤 문제를 갖는지 보이고자 한다. 결론은 이렇다. 무어는 상식에 기대고 있을 뿐, 엄밀한 논증을 펼친다고 할 수 없다. 결국 무어의 논증은 실패로 돌아간다.

* 서울시립대학교

서론

본 논문에서 필자는 외부세계에 대한 회의론을 옹호하고, 이를 바탕으로 외부세계 존재에 대한 무어의 논증을 비판하고자 한다. 외부세계에 대한 회의론이란, 우리 정신에 펼쳐지는 세계가 어쩌면 꿈일 수도 있다는 철학적 입장이다. 비상식적인 이러한 입장은 이상하게도 철학사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금방 떠오르는 철학자만 해도, 데카르트, 라이프니츠, 버클리, 칸트 등이 이러한 생각을 제기하고 있다¹⁾. 이들의 이름으로 외부세계에 대한 회의주의가 정당화될 수는 없지만, 이 이름들이 갖는 무게는 우리로 하여금 이러한 회의주의를 쉽게 외면해 버릴 수는 없도록 만든다. 본 논문에서 필자는 어떤 모델을 제공함으로써, 이처럼 외부세계 회의주의가 쉽게 반박될 수 있는 이론이 아님을 보이고자 한다. 이것이 본 논문의 첫 번째 목적이다.

논문의 두 번째 목적은 이러한 회의주의에 대한 비판으로 이해될 수 있는 무어의 논증을 살펴보고, 이를 반박하는 것이다. 무어는 외부세계를 증명하고자 한다. 즉 우리가 꿈을 꾸고 있을 수도 있다는 주장을 반박하고자 한다. 필자는 무어의 논증에 동원되는 몇 가지 개념장치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를 바탕으로 무어 논증을 분석함으로써, 그의 외부세계 존재 증명이 어떤 문제를 갖는지 보이고자 한다. 결론은 이렇다. 무어는 상식에 기대고 있을 뿐, 엄밀한 논증을 펼친다고 할 수 없다. 이제 이 결

1) 물론 이들 모두가 이러한 입장을 자신의 최종 입장으로 채택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데카르트의 경우, 진정으로 존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는 과정에서, 그는 이러한 외부세계 회의주의적 입장을 일단 취한 후, 이를 반박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다시 말해, 지식의 근거를 오로지 감각지각에 두는 것을 반박하기 위한 귀류법적인 전제로서 이러한 외부세계 회의주의의 입장을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데카르트(1997), 36-44, 참조) 이에 관해 적절한 논평을 해 주신 석기용 선생께 감사드린다.

론을 내기 위해, 차례대로 나아간다. 우선 외부세계 회의주의를 이해하기 위한 모델을 제시하는 것으로 출발하도록 한다.

본론

1. 외부세계에 대한 회의론 모델

외부세계에 대한 회의론을 이해하려면, 그래서 그 입장이 정당화되면, 모델이 필요하다. 우선 다음과 같은 모델을 살펴보자. 모델은 어떤 대상, 철수가 그린 그림, 그리고 엄마, 이 셋으로 구성된다. 철수를 남겨 놓고 엄마는 시장에 갔다 온다. 그리고 엄마는 철수가 그린 그림을 보게 된다. 이제 이 그림과 관련해 세 가지 가능성이 제기된다. 첫째, 철수는 집 안의 어떤 물건을 제대로 잘 그렸다. 둘째, 철수는 집 안의 어떤 물건을 왜곡해 그렸다. 셋째, 철수는 집 안에 없는 물건을 그렸다. 이 세 가지 가능성들 중 어떤 것이 진실인지 엄마는 확인할 수 있다. 집안을 잘 살펴, 셋 중 어느 하나가 진실임을 엄마는 보여줄 수 있다. 이제 이 모델의 특징을 살펴보자. 모델에서는 그림이 하나 있고, 어떤 대상이 하나 있고(없을 수도 있다), 이 둘 밖에서 그림과 대상의 관계(일치 혹은 불일치)를 확인해 줄 엄마가 있다. 여기서의 핵심은 엄마라는 존재가 그림, 그리고 대상, 이 둘 밖에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엄마는 그림과 대상의 관계를 파악할 수 있다.

이제 이 모델과 관련해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인식하는지 살펴보자. 우리는 우리 정신에 맺힌 상이 우리 밖의 대상들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잘 알 수 있다고 믿는다. “너 잘못 본거야!”라는 표현이 이를 말해준다. 그래서 우리 정신이라는 그림, 외부 대상, 그리고 이 둘의 관계를 파악할 그 무언가가(위 모델에서의 엄마처럼) 존재한다고

믿는다. 정말 우리는 우리 정신 밖에 있다고 믿어지는 외재적 대상과, 그 대상을 표상하는 우리 정신 내부의 상, 이 둘의 관계에 대해, 위 모델의 엄마처럼 그 관계를 파악할 수 있을까? 그렇게 할 수 없다. 왜냐하면 위 모델에서 엄마는 그림과 대상 밖에 있지만, 우리는 우리 정신의 그림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가 세계를 인식할 때, 그러한 인식에 대한 적절한 모델은, 그림, 대상, 엄마, 이 셋으로 이루어진 모델이 아니라, 그림과 대상, 이 둘로 이루어진 모델이다. 다시 말해 우리는 그림 밖의 존재가 아니라, 우리가 그림이다. 그림과 대상으로부터 독립적인 존재는 없다. 우리는 그림 안에 갇혀 있다. 따라서 그림과 대상간의 관계에 대해, 이 둘이 서로 대응한다거나, 왜곡되었다거나, 대상이 없는 그림이라거나 하는 가능성 중 어느 하나가 옳다고 우리는 주장할 수 없다. 전통적으로, 특히 라이프니츠에 따르면, 위 모델에서의 엄마 역할을 하는 존재가 있다. 바로 신이다. 신은 우리 정신의 그림 밖에서, 그리고 그 그림이 그린다고 믿어지는 대상들 밖에서, 이 둘을 바라보며, 우리 정신이 대상을 잘 그리고 있는지, 왜곡해 그리고 있는지, 아니면 없는 대상을 그리고 있는지를 파악한다. 신은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는 이런 능력을 갖지 못한다. 따라서 우리 인식과 관련한 우리의 판단은 매우 제한적이다. 그래서 철학사적으로 봤을 때, 이 세 가능성은 모두 옹호되어 왔고, 우리는 우리의 인식적 한계로 인해, 이 중 어느 하나만이 옳은 이론이라 주장할 수 없는 것이다.

세 개의 개념을 도입해 이러한 가능성들을 정리해 보자. 첫째, 나는 표상적 내부세계라는 개념을 도입할 것이다. 표상적 내부세계는, 우리 감각기관이 다 닫혔을 때, 예를 들어 내가 꿈을 꾸고 있을 때, 내 정신에 펼쳐지는 세계이다. 그리고 그 세계 내의 대상들을 표상적 내부대상이라고 부르자. 표상적 외부세계는 내가 나의 감각기관을 열었을 때 내 정신에 펼쳐지는 세계이다. 이 세계는 꿈에서 깨어난 상태에서 내 정신에 펼쳐지는 세계로서, 우리는 내 정신의 이런 그림들이, 내 정신 밖의 어떤 사

물들로 인해 그려진 것이라 믿는다. 셋째, 바로 이렇게 내 정신의 그림들을 만들어 낸다고 믿겨지는 바로 그 사물들의 세계를 나는 실제적 외부세계라고 부를 것이다.

우리는 앞에서 우리 인식의 모델이, 그림, 대상, 업마, 이 셋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림, 대상, 이 둘로 이루어져 있다고 주장했다. 모델이 셋으로 이루어지려면, 우리는 그림 밖으로, 우리 정신 밖으로 나가야 하는데, 그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꿈의 경우를 제외한다면(이 경우는 뒤에서 논의될 것이다), 우리에게 남은 것은 그림과 대상, 우리의 용어로 하면 표상적 외부세계와 실제적 외부세계인데, 우리는 이 둘의 관계가 어떠한지 알 수 있는 인식적 위치에 놓여있지 못하다. 즉 표상적 외부세계라는 우리 정신의 그림이, 존재하는 실제적 외부세계를 제대로 잘 그린 그림인지(상식적으로 이렇게 믿고 있으며, 철학사에서는 오랜 동안 이것이 당연시 되었다. 나는 이 입장을 ‘전통적 실재론’이라고 부르거나 한다), 왜곡해 그린 그림인지(라이프니츠, 칸트 식의 개념 도식론이라고 한다), 없는 것을 그린 그림인지(버클리 식의 외부세계 회의론이라고 한다), 우리는 알 수 없다. 따라서 이 세 이론 중 어떤 이론이 적절한 것인지 우리는 결정할 수 없다. 이러한 결정은 취향의 문제이다. 칸트는 실제적 외부대상을 물자체라고 불렀다. 위에서 본 것처럼 물자체의 존재에 대한 칸트의 확신은 그의 믿음일 뿐이다. 반면 우리가 물자체에 대해 그것이 어떤 특성을 가지는지 알 수 없다는 칸트의 주장은, 우리가 우리 정신 밖으로 나가야만 물자체의 특성을 확인할 수 있는데, 그것은 불가능하다는 우리의 주장과 일치한다.

그래서 실재론, 개념 도식론, 외부세계 회의론, 이 셋은 서로 간의 이론적 우위 없이 난립할 수 있다. 이제 이러한 상황이 우리에게 주는 한 가지 교훈을 살펴보자. 이 세 이론 중 어느 하나가 옳음을 주장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우리가 우리 정신 밖으로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즉 표상적 외부세계 밖으로 나가야만, 우리는 이 세 이론 중 어느 하나가 옳

은 이론임을 확인할 수 있다. 불가능한 일이긴 하지만 말이다. 그런데 우리는 간혹 표상적 내부세계와 관련해서도 이런 일을 겪는다. 즉, 우리가 꿈을 꾸는 동안, 내가 표상적 외부세계라고 생각했던 것이 사실 꿈에서 깨어나 보면, 표상적 내부세계였음을 깨닫게 되는 경우. 회의주의자들은 실제적 외부세계의 존재를 부정하는 입장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표상적 외부세계가 사실은 표상적 내부세계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 즉 이들에 따르면 우리 모두는 꿈을 꾸고 있는 것이다. 꿈이었음을 알게 될 조건은 꿈에서 깨어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꿈을 꾸고 있는 동안, 그 세계에 간혀 있는 동안, 우리는 우리에게 펼쳐진 세계가 표상적 내부세계인지, 표상적 외부세계인지 확인할 방법이 없다. 그런데 우리가 영원히 꿈을 꾸고 있다면?

라이프니츠는 실제적 외부대상의 존재를 확신한다. 모나드들의 세계가 바로 그러하다. 라이프니츠는 표상적 외부세계도 긍정한다. 그의 말을 들어보자.

어떤 현상이 [꿈이 아니라] 실제적인지, 어떤 기준을 통해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는지 살펴보자. 우리는 이것을 현상 그 자체를 통해서, 그리고 그 현상 이전과 이후의 현상을 통해서 판단할 수 있다. 우리는 현상 그 자체를 통해 이것을 결정할 수 있는데, 만약 그것이 생생하고 vivid, 복합적이고, 내재적으로 일관적일 때 그렇게 결정[그 현상이 실제적이라고 결정]할 수 있다. 빛, 색, 온기 등등의 성질들이 충분히 강하게 드러난다면, 그것은 생생한 것이다. 이러한 성질들이 다양하다면,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여러 실험과 새로운 관찰을 하도록 해 준다면, 그것은 복합적인 것이다. 예를 들어, 하나의 현상에서 우리가 색깔만 아니라 소리, 냄새, 맛, 촉감 등을 경험한다면 [...] 어떤 현상은 다음과 같은 경우 일관적이다. 즉 그것이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드러났던 다른 현상들의 일상적 본성과 부합한다면.)

2) Leibniz, G. W., Leroy E. Loemker(ed)(1969), 363-364.

그러나 라이프니츠는 이러한 표상적 외부세계가 표상적 내부세계일 수도 있다고 주장한다. 즉 우리가 생시라고 생각하는 그림이 사실은 꿈일 수도 있다고 주장한다. 우리 모두는 꿈을 꾸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적 현상을 구분하는 지금까지 얘기되었던 기준, 이 기준들 모두가 함께 고려된다 하더라도 이러한 기준은 증명이 아니라서 우리는 받아들여야 한다. 매우 큰 확률을 갖기는 하지만 말이다. 혹, 통상적으로 얘기하자면, 이 기준은 심정적moral 확실성만큼은 제공해주지만, 형이상학적 확실성을 확립하지는 못한다. 반대를 긍정하면 모순에 이르게 되는 그러한 형이상학적 확실성 말이다. 따라서 물체가 존재한다는 것은 그 어떤 논증을 통해서도 절대적으로 증명될 수 없다. 혹은 잘 질서 지워진 꿈이 우리 정신의 대상이 되는 것을 막는 것은 없다.³⁾

라이프니츠에 따르면, 내 정신에 그려진 그림이 표상적 내부세계인지, 즉 지금 내가 꿈을 꾸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 그림이 표상적 외부세계인지, 즉 깨어 있는 것인지 구별할 방법은 없다. 우리는 심정적으로 확신하지만, 절대적으로(형이상학적으로) 확신할 수는 없다. 라이프니츠에 따르면, 표상적 외부대상(라이프니츠 용어로 ‘물체’)이 존재한다는 것은 그 어떤 논증을 통해서도 증명될 수 없다.

무어가 이러한 라이프니츠의 입장에 도전한다. 그는 표상적 내부세계와 표상적 외부세계를 구별할 방법이 있다고 생각한다. 다시 말해, 그는 외부세계의 존재를 증명하고자 한다.

2. 외부세계 존재에 대한 무어의 증명

「외부세계에 대한 증명Proof of an external world」이라는 논문에서 무어는 다음과 같은 칸트의 주장을 인용하면서 논의를 펼친다.

3) Leibniz, G. W., Leroy E. Loemker(ed)(1969), 364.

우리 밖 사물들이 존재함은 ... 그저 믿음에 근거해서만 받아들여져야 한다는 것, 이것은 여전히 철학의 스캔들로 남아있다. 그리고 만약 누군가가 이러한 사물들의 존재를 의심할 만 하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 어떤 증명으로도 그의 의심을 만족시킬 수 없다.⁴⁾

무어는 이러한 철학적 스캔들에 도전하면서, 자신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우선 무어에 따르면, 우리 정신에 나타나는 여러 상황들은 두 종류로 나뉜다. 하나는 우리가 위에서 표상적 내부대상이라고 불렀던 그러한 것들이며, 다른 하나는 우리가 위에서 표상적 외부대상이라고 불렀던 것들이다. 표상적 내부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무어는, 잔상after-image(예를 들어 내가 빛을 보고 있다가 눈을 감았을 때, 하얗게 보이는 것), 육체적 고통, 꿈, 환영 등을 언급한다. 다른 한편 무어는 표상적 외부대상에 해당하는 것들도 언급하는데, 나의 몸, 동물, 식물, 집, 별 등이 그것이다. 편의를 위해, 꿈속에서의 별을 ‘꿈-별’이라고 표기하고, 표상적 외부대상으로서의 별을 그냥 ‘별’이라고 표기하자. 이제 표상적 외부대상의 존재, 즉 별의 존재를 증명하기 위한 무어의 전략은, 표상적 내부대상과 표상적 외부대상을 가르는 기준을 제시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이 둘을 가르는 기준에 대해 무어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다. 내가 느끼는 육체적 고통, 내가 보는 잔상after-image, 한편으로 이것들과, 다른 편으로 나의 몸, 이 둘 사이에 느껴지는 차이는, 그래서 철학자들로 하여금 이런 고통이나 잔상은 “내 정신 안에” 있지만, 내 몸은 전혀 그렇지 않고 오히려 언제나 내 정신 ‘밖에’, 혹은 내 정신에 외재한다고 external 말하도록 했던 바로 그 차이는 다음과 같은 것, 즉 내가 아무런 경험을 갖지 않으면서 [동시에] 내가 느끼는 어떤 고통, 혹은 내가 보는 어떤 잔상이 존재한다고 가정하면 모순에 봉착하지만, 내

4) Moore, G. E., Baldwin, T(ed)(2013), 147에서 재인용.

가 아무런 경험을 갖지 않으면서 [동시에] 내 몸이 존재한다고 가정하는 것에는 모순이 없다는 것, 바로 그것이다.⁵⁾
 무어의 주장을 정리해 보자. ‘내 마음 속’, 즉 표상적 내부대상과, ‘외재적’, 즉 표상적 외부대상을 가르는 기준은 다음과 같은 것이다.

‘표상적 내부대상’ =df $\neg(\text{꿈-별} \ \& \ \text{-경험}) \equiv \square(\text{꿈-별} \rightarrow \text{경험})$
 ‘표상적 외부대상’ =df $\diamond(\text{별} \ \& \ \text{-경험})$

표상적 내부대상의 경우 경험 없이는 그것의 존재가 불가능하다. 즉, 그것이 존재한다면, 필연적으로 경험되어야 한다. 반면 표상적 외부대상의 경우, 경험이 되지 않으면서 존재하는 것이 가능하다. 별은 내가 경험하지 않으면서도 존재할 수 있지만, 나의 고통은, 나의 경험을 동반하지 않고는 존재할 수 없다. 즉, 고통이 존재한다면, 나는 반드시 그것을 경험해야만 한다. 표상적 내부대상과 표상적 외부대상을 가르는 이러한 무어의 기준을 나는 ‘내/외 구분조건’이라고 부르고자 한다. 무어는 내/외 구분조건을 통해 꿈-별과 별을 구분한다. 그리고 이를 통해 그는 표상적 외부대상의 존재를 증명한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이제 나는, 예를 들어 두 개의 손이 존재함을 증명할 수 있다. 어떻게? 내 두 손을 들면서, 오른손으로 어떤 동작을 하면서, ‘여기 손 하나가 있다’고 말하고, 또 왼손으로 어떤 동작을 하면서, ‘여기 다른 손이 있다’고 말하면서. 그리고 이렇게 하면서 내가 외부 사물의 존재를 증명했다면, 당신들 모두는 내가 다른 많은 방식으로든 이러한 증명을 할 수 있음을 보게 될 것이다.⁶⁾

무어의 논증을 정리해 보자. 외부대상 존재에 대한 그의 논증/증명은 두 개의 전제와 하나의 결론으로 구성되어 있다.

5) Moore, G. E., Baldwin, T(ed)(2013), 163.

6) Moore, G. E., Baldwin, T(ed)(2013), 165-166.

여기 손 하나 있다.
여기 다른 손 하나 있다.

적어도 두 개의 외부대상이 존재한다.

라이프니츠의 경우, 외부대상이 존재함은 증명될 수 없다. 외부대상이 존재한다는 것은 심정적으로 볼 때는 확실하지만, 이러한 확실성이 형이상학적 확실성의 지위까지 얻지는 못한다. 반면 무어는 위의 논증을 통해 외부대상이 존재함을 증명하고 있다. 어떤 주장이 옳을까? 이제 무어의 논증을 분석함으로써, 나는 무어의 논증이 잘못되었음을 보이고자 한다. 나는 세 가지 방향에서 이를 보일 것이다. 첫째, 표상적 내부대상과 표상적 외부대상을 가르는 무어의 기준, 즉 내/외 구분조건이 거짓임을 보일 것이다. 둘째, 무어의 논증이 여러 방식으로 해석될 수 있음을 보이고, 무어가 해결할 수 없는 한 가지 해석의 가능성을 확보함으로써, 무어 논증이 거짓임을 보일 것이다. 셋째, 무어가 해결할 수 없는 한 가지 해석에 대한 무어의 대답을 살펴보고, 이것이 적절한 대답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밝힘으로써, 무어의 논증이 잘못되었음을 보일 것이다. 이제 이것을 시작하도록 한다.

3. 내/외 구분조건

앞에서 우리는 외부세계에 대한 회의주의적 성격을 보여주는 라이프니츠의 주장을 인용했었다. 이를 다시 한 번 인용하도록 한다.

실재적 현상을 구분하는 지금까지 얘기되었던 기준, 이 기준들 모두가 함께 고려된다 하더라도 이러한 기준은 증명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한다. 매우 큰 확률을 갖기는 하지만 말이다. 혹, 통상적으로 얘기하자면, 이 기준은 심정적moral 확실성만큼은 제공해주지만, 형이상학적 확실성을 확립하지는 못한다. 반대를 긍정하면 모순에 이르게 되는 그러한 형이상학적 확실성 말이다. 따라서 물체가 존재한다는 것은 그 어떤 논증을 통해서도 절대적으로 증명될 수 없다. 혹은 잘 질서 지워진 꿈이 우리 정신의 대상이 되는 것을 막는 것은 없다.7)

필자는 라이프니츠의 주장에 동의한다. 즉 우리 모두는 꿈과 생시를 잘 구분하지만, 그러한 구분은 심정적일 뿐 절대적일 수 없다. 이러한 생각은 자연스럽게 다음과 같은 생각으로 이어진다. 즉, 무어의 내/외 구분조건은 거짓이다. 우리는 내부대상과 외부대상을 절대적인 방식으로 구분할 수 없다는 것이다. 우선, 무어의 내/외 구분조건을 다시 살펴 보자.

‘표상적 내부대상’ =df $\neg(\diamond\text{꿈-별} \ \& \ \neg\text{경험}) \equiv \square(\text{꿈-별} \rightarrow \text{경험})$
 ‘표상적 외부대상’ =df $\diamond(\text{별} \ \& \ \neg\text{경험})$

꿈을 꾸는 동안, 나는 다음과 같은 경험을 한 적이 있다. A라는 사람에게 내가 말했다. “별 하나 따 줄게.” A가 물었다. “어떤 별?” 다시 내가 말했다. “몰라! 어딘가 있을 별.” 그리고 나는 나중에 그 별을 발견하고 가리켰다. 무어에 따르면, 내 꿈속에서의 이 별은, 별이면서 동시에 내가 경험하고 있지 않은 별이다. 그리고 내/외 구분조건이 제시하는 정의에 근거해 본다면, 이 별은 내부대상이 아니라 외부대상이 된다8). 무어는 이 가능성을 제거해야 한다. 즉 내/외 구분조건은 보충이 필요하다.

7) Leibniz, G. W., Leroy E. Loemker(ed)(1969), 364.

8) 사실, “ $\square(\text{꿈-별} \rightarrow \text{경험})$ ”, 그리고 “ $\neg(\diamond\text{꿈-별} \ \& \ \neg\text{경험})$ ”, 이 두 명제는 모순관계에 있다. 따라서 둘 중 어느 하나가 참이라면, 다른 하나는 거짓이 된다. 그런데, 위의 예에서 나는 경험 없이 꿈-별의 존재를 확인했다. 따라서 “ $\square(\text{꿈-별} \rightarrow \text{경험})$ ”는 거짓이다. 즉 표상적 내부대상이 반드시 경험을 함축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라이프니츠와 마찬가지로 필자는 이러한 보충이 불가능할 것이라 생각한다.

4. 외부세계 존재 증명에 대한 여러 가능한 해석들
외부세계 존재에 대한 무어의 증명은 다음과 같다.

여기 손 하나 있다.
여기 다른 손 하나 있다.

적어도 두 개의 외부대상이 존재한다.

무어의 이 논증은 표면적으로는 일의적이지만, 사실 분석을 가하면, 매우 다양한 해석들이 나올 여지가 있다. 가능한 해석들을 살펴보면서, 이 논증이 어떤 문제점을 지니고 있는지 살펴보자.

우선 무어가 의도하지 않았던 것, 혹은 무어가 배제하고자 했던 해석을 살펴보자. 위 논증에 대한 다음과 같은 해석이 그러하다.

표상적 외부대상으로서의 손₁이 있다.
표상적 외부대상으로서의 손₂가 있다.

적어도 두 개의 실제적 외부대상이 존재한다.

무어 논증에 대한 이 해석은 표상적 외부대상으로서의 손₁, 손₂가 있다는 전제로부터 적어도 두 개의 실제적 외부대상이 존재한다는 결론을 도출하고 있다. 이 해석은 배제되어야 하는데, 무어가 그렇게 배제하고 있

기 때문이다.

이제 우리가 본 것처럼 칸트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우리 밖’ 혹은 ‘외재적’이라는 문구는 실제로 완전히 서로 다른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된다. 그리고 이 두 가지 의미 중 칸트가 ‘초월적’ 의미라고 부르는 그러한 의미와 관련해 [...] 칸트가 다음과 같이 주장한 것, 즉 공간을 차지하는 사물들 things to be met with in space은 이러한 의미에서[초월적 의미에서] ‘외재적’인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 것은 악명 높다. [...] 만약 ‘외재적’이라는 문구가 이런 의미로 사용된다면, 그렇다면 “두 마리의 개가 존재한다”라는 명제로부터, 어떤 [초월적으로] 외재적 사물이 있다는 명제는 따라 나오지 않는다. [...] 그러나 다른 의미, 즉 칸트에 따르면 ‘외재적’이라는 단어가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그러한 의미, 칸트가 ‘경험적으로 외재적인’이라고 불렀던 그러한 의미에서의 외재성은 어떠한가?)

이렇게 무어는 칸트의 주장을 인용해, ‘외재성’이라는 단어가 두 가지 의미를 가진다고 주장한다. 하나는 초월적 외재성이고 다른 하나는 경험적 외재성이다. 무어에 따르면 “두 마리의 개가 존재한다”라는 명제로부터 “경험적으로 외재적인 것이 존재한다”라는 명제는 도출되지만, “초월적으로 외재적인 것이 존재한다”라는 명제는 도출되지 않는다. 따라서 위의 해석, 즉 “표상적 외부대상으로서의 $손_1$, $손_2$ 가 있다”는 전제로부터 “적어도 두 개의 실제적 외부대상이 존재한다”는 결론을 도출하고 있는 위의 해석은 배제되어야 한다. 실제로도 이 논증은 타당하지 않다. 전제가 참이라 하더라도 결론이 거짓일 수 있다.

똑같은 논리로, 다음과 같은 해석도 배제되어야 한다.

9) Moore, G. E., Baldwin, T(ed)(2013), 159.

표상적 내부대상으로서의 손1이 있다.
표상적 내부대상으로서의 손2가 있다.

적어도 두 개의 표상적 외부대상이 존재한다.

이제 무어가 진정으로 의도했던 해석을 살펴보자. 다음의 논증이 그러하다.

A-해석 :
표상적 외부대상으로서의 손1이 있다.
표상적 외부대상으로서의 손2가 있다.

적어도 두 개의 표상적 외부대상이 존재한다.

이 논증은 타당하다. 전제가 참이면 결론도 무조건 참이다. 그리고 이 A-해석이 바로 무어가 의도했던 그러한 해석이다. 그런데 문제는 무어의 원래 논증이 이런 방식으로만 해석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무어의 원래 논증은 이렇게 해석될 수도 있지만, 다른 방식으로도 해석 가능하다. 다음과 같은 해석이 그러하다.

B-해석 :
표상적 내부대상으로서의 손1이 있다.
표상적 내부대상으로서의 손2가 있다.

적어도 두 개의 표상적 내부대상이 존재한다.

B-해석도 무어의 원래 논증에 대한 가능한 해석이다. 그리고 이 논증 역시 타당하다. 즉, 전제가 참이면 결론도 무조건 참이다. 나는 이 논문을 쓰는 동안, 꿈속에서, 꿈의 세계에서, A-해석이 말해주는 논증을 펼친 바 있다. 그리고 그렇게 논증을 펼치면서, 나는 적어도 두 개의 표상적 외부대상이 존재함을 증명했었다. 그리고 꿈에서 깨어난 후, 난 내가 펼친 논증이, 사실은 A-해석이 말해주는 논증이 아니라, B-해석이 말해주는 논증임을 깨닫게 되었다. 따라서 무어는 이런 가능성을 배제해야 한다. 즉, 무어는 B-해석의 가능성(꿈 속에서의 논증)을 배제해야 한다. 무어는 B-해석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있을까? 필자의 생각에, 이는 어려워 보인다. 이제 왜 그런지 살펴보도록 하자.

우리 각자는 여러 믿음들을 갖고 있지만, 다른 사람들 모두가 그 믿음을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다. 때로 사람들은 나의 믿음에 의심을 표하기도 한다. 그럴 경우 우리가 할 일은 나의 믿음이 옳다는 것을 보이기 위해 근거를 대는 것이다. 이렇게 나의 주장이 옳다는 것을 보이기 위해 근거를 대는 행위를 논증이라고 한다. 무어의 논증도 이러한 취지를 살리고 있다. 즉 그는 근거/전제를 제시함으로써 자신의 결론을 정당화하고자 한다. 그런데 외부세계 회의론자들은 무어의 결론, 즉 “적어도 두 개의 표상적 외부대상이 존재한다”라는 명제에 의심의 시선을 보내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이러한 회의론자들은 B-해석의 가능성을 열어놓고, 무어의 결론 대신 “적어도 두 개의 표상적 내부대상이 존재한다”라는 명제만이 참이라고 간주한다. 이에 대해 무어는 자신의 결론을 정당화하기 위해 두 개의 전제/근거를 제시한다. 바로 “표상적 외부대상으로서의 손₁이 있다”와 “표상적 외부대상으로서의 손₂가 있다”가 그것이다. 그리고 이 전제로부터 무어의 결론은 잘 도출된다. 회의론자들은 이 논증을 통해 설득될 수 있을까? 즉 회의론자들은 무어의 논증을 통해, 그가 주장하는 결론을 받아들이게 될 것인가? 이것이 문제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회의론자들은 무어의 논증을 통해 설득될 수 없다.

회의론자들은 무어의 결론, 즉 “적어도 두 개의 표상적 외부대상이 존재한다”라는 명제에 대해 회의적이다. 그렇다면 이들은 무어의 전제, 즉 “표상적 외부대상으로서의 손이 있다”라는 명제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것이다. 적어도 두 개의 표상적 외부대상이 존재한다는 것에 회의적인 사람이라면, 그래서 그 대상이 사실은 표상적 외부대상이 아니라 표상적 내부대상일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은, 표상적 외부대상으로서의 손이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것이다. 즉 그 표상적 외부대상으로서의 손이 사실은 표상적 내부대상일 수 있다고 생각할 것이다. 이렇게 볼 때, 무어의 논증은 오류를 지니게 된다. 즉, 무어가 내린 결론을 의심하는 그 누구라도 무어가 사용하고 있는 전제 역시 의심하게 되어 있다. 따라서 이들에게 무어의 논증은 의심스러운 전제로부터 의심스러운 결론을 도출하고 있는 논증, 즉 통상적으로 올바른 논증이란 전제의 참임을 해결해 주어야(선결) 결론의 참임도 정당화되는데, 그렇게 하고 있지 못하는 논증, 요약하자면 선결문제 가정의 오류를 지닌 논증일 뿐이다.

무어는 자신의 결론을 정당화하기 위해 논증/증명을 시도한다. 즉 그는 근거/전제를 제시한다. 그러나 무어의 결론을 의심하는 그 누구라도 그의 전제 역시 의심스러워하게끔 이 논증은 구성되어 있다. 표상적 외부대상의 존재를 의심하는 사람은, 그것이 사실은 표상적 내부대상일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는 사람이다. 이 사람에게 내 손은 표상적 내부대상이라고 여겨질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 사람의 의심을 풀어주려면 내 손이 정말로 표상적 외부대상임을 보여주어야 하는데, 즉 B-해석의 가능성을 배제해 주어야 하는데, 무어의 논증만으로는 이 상황을 해결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이 사람에게 있어 무어의 논증은 의심스러운 전제로부터 의심스러운 결론을 도출하는, 그래서 선결문제 가정의 오류를 포함하고 있는 잘못된 논증으로 여겨질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B-해석의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고, 이를 해결하지 못하는 한, 회의론자들을 만족시킬 수 없을 것이다¹⁰⁾.

5. 잘못된 유비논증

무어는 자신의 논증이 오직 A-해석적 방식으로 이해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에서 본 것처럼 B-해석의 가능성은 쉽게 배제되지 않는다. 이에 대해 무어는 다음과 같은 유비 논증을 펼치며 자신을 정당화한다.

예를 들어, 어떤 책의 어떤 페이지에 오자 세 개가 있는지가 문제라고 가정해보자. A는 그렇다고 말하고, B는 그것을 의심하는 입장이다. A는 자신이 옳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 분명 그는 그것을 증명할 수 있을 것이다. 책을 들고서, 그 페이지를 펼치고, 세 지점을 가리키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다. ‘여기 오자 하나, 여기 오자 하나, 그리고 여기 오자 하나.’ 이는 분명 오자가 있음을 증명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 [...] 그리고 이것이 확실한 것일 수 있다면, 이제 다음과 같은 것도 확실한 것이다. 내가 가리켰던 두 곳 중 하나에 한 손이 있었고, 다른 한 곳에 다른 손이 있었다는 것.¹⁰⁾

문제는, 이 논문을 쓰면서 나는 위와 똑같은 상황의 꿈을 꾸 적이 있다는 것이다. 꿈 얘기는 앞에서 했으니 더 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꿈 얘기가 중요해지는 지점이 있다. 무어는 오자 존재 증명과 외부세계 존재 증명이 유사한 증명이라고 주장하면서, 오자 존재의 증명처럼 외부세계 존재 증명도 정당하다고 주장하는데, 사실 이 두 논증은 완전히 다른 논증이라는 점이 그것이다. 외부세계 존재 증명은 그 증명이 A-해석적으로 이해될지, 아니면 B-해석적으로 이해될지에 따라, 정당한 증명일 수도, 정당한 증명이 아닐 수도 있다. 생시에 그 증명을 펼친다면 그 증명은 성공하지만, 꿈에서 그 증명이 펼쳐지지 말라는 법은 없다. 반면 오자 존재의 증명은, 그 증명이 생시에 펼쳐지든, 아니면 꿈에서 펼쳐지든 아무

10) 선우환(2010), 189-191 참조.

11) Moore, G. E., Baldwin, T(ed)(2013), 167.

상관이 없다. 생시에 이 증명이 펼쳐질 때도 나는, 그리고 우리 모두는, 결론이 전제에 의해 정당화됨을 확신할 수 있으며, 또 꿈에서 이 증명이 펼쳐질 때도 나는, 그리고 우리 모두는, 전제로부터 결론이 도출됨을 확인하는데 아무런 문제를 느끼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오자 존재 증명은 꿈이건 생시이건 상관없이 정당하다. 반면 외부세계 존재 증명은 그것이 꿈에서의 증명인지, 아니면 생시에서의 증명인지에 따라 정당한 논증일 수도, 혹은 정당한 논증이 아닐 수도 있는 것이다. 따라서 오자 존재 증명을 근거로, 그것과의 유비를 통해, 외부세계 존재 증명을 정당화할 수 없다. 이 둘은 완전히 서로 다른 증명들이다.

사실 무어의 논증은 (논리학에서 말하는 건전성과는 다른 의미에서, 즉 상식적인 의미에서) 건전하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무어의 논증에 동의할 것이라 생각된다. 그러나 우리가 무어의 논증에 동의하는 것은 그것이 엄밀한 논증이기 때문이 아니다. 우리가 동의하는 이유는 그것이 상식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사실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외부세계의 존재에 대한 증명조차 필요 없다. 우리 모두는 논증에 의존하지 않고도 외부세계의 존재를 확신한다. 여기서 무어 논증의 오류가 발생하는 것이다. 이 논증은 그냥 상식에 기대고 있다는 바로 그것. 그러나 엄밀한 철학적 분석이 가해지면, 그래서 형이상학적 가능성들을 염두에 둔다면, 무어의 논증은 그 힘을 잃게 된다. 칸트의 말처럼, “우리 밖 사물들이 존재함은 ... 그저 믿음에 근거해서만 받아들여져야 한다는 것, 이것은 여전히 철학의 스캔들로 남아있다. 그리고 만약 누군가가 이러한 사물들의 존재를 의심할 만 하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 어떤 증명으로도 그의 의심을 만족시킬 수 없다.” 라이프니츠의 말처럼, “실재적 현상을 구분하는 지금까지 얘기되었던 기준, 이 기준들 모두가 함께 고려된다 하더라도 이러한 기준은 증명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한다. 매우 큰 확률을 갖기는 하지만 말이다. 혹, 통상적으로 얘기하자면, 이 기준은 심정적moral 확실성만큼은 제공해 주지만, 형이상학적 확실성을 확립하지는 못한다.

[...] 잘 질서 지워진 꿈이 우리 정신의 대상이 되는 것을 막는 것은 없다.” 무어의 증명은 실패다.

결론

실제적 외부대상들의 세계에 가 본 사람이라면, 지금 이 세계에서 우리에게 펼쳐지는 그림들이 실제적 외부대상들을 잘 반영하고 있는지, 잘못 반영하고 있는지, 아니면 없는 것을 그리고 있는지 판단할 수 있다. 물론 이것은 불가능하다. 신만이 이러한 역할을 맡을 수 있다. 이와 똑같은 맥락에서, 잠에서 깨어난 우리는 꿈속에서 내가 만난 사람이 예전에 내가 만났던 사람인지, 그 사람과 다른 사람이 섞인, 두루뭉술한 사람인지, 아니면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던, 즉 현실에 없는 사람인지 판단할 수 있다. 우리는 이런 경험을 거의 매일 한다. 그래서 우리는 꿈과 생시를 잘 구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렇게 꿈과 생시를 잘 구분할 수 있는 이유는 매일의 경험에서 비롯된 것이다. 꿈을 꾸고, 꿈에서 깨어나므로써, 그리고 이것이 반복됨으로써, 우리는 이 두 상태를 잘 구분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이다. 문제는, 만약 우리가 지금 꿈을 꾸고 있다면, 우리는 이 두 상태를 구분할 처지에 놓이지 못한다는 점에 있다. 라이프니츠의 주장처럼, 잘 질서 지워진 꿈, 아주 생생한 꿈은, 우리로 하여금 바로 그 세계가 생시의 세계인 것으로 믿게끔 만든다. 어떤 때는 꿈속에서 깨어났는데, 여전히 꿈인 경우도 있다. 한 번 더 깨어나서야 비로소 그것이 메타 꿈인지 알게 되는. 물론 한 번 더 깨어나서야 비로소 그런 줄 알게 되는 수도 있다. 이런 가능성들은 외부세계 회의론자들로 하여금, 꿈과 생시의 구분이 그렇게 분명한 것은 아니라는 믿음을 갖게끔 했다. 심정적으로는 이 구분이 분명하지만, 그 어떤 증명도 불가능하

다는 것이 그들의 믿음이다. 무어가 여기에 도전했지만, 필자의 생각에는 실패다. 실패한 이유는 너무나 상식적인 것(무어 논증의 결론 부분)을, 상식에 기대어(무어 논증의 전제 부분) 증명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¹²⁾. 믿음의 영역, 심정적으로만 확실한 영역은 그 영역의 특성을 존중해 그대로 놔두어야 한다는 것이 전통적 회의론자들의 믿음인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필자는 이들의 믿음에 동의한다.

12) 사실 무어는 필자의 반론을 충분히 예상하고, 그에 대응하고 있다. 즉 위에서 언급한 꿈의 가설을 예상하고, 이에 대응하고 있다. 그러나 그 대응이라는 것이 바로 본 논문에서 필자가 비판한 것, 즉 상식에 기댈 수밖에 없다는 것 정도이다. 그에 따르면 내 손이 있다는 것은 절대 꿈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외부 세계 회의론자들이 이를 받아들일 수는 없을 것이다. 이들을 납득시키려면, 논증이나 이론이 필요한데, 무어가 하려고 한 것, 즉 외부세계의 존재에 대한 증명, 위에서 본 것처럼 선결문제 가정의 오류를 지녀서 설득력이 많이 떨어진다.

참고문헌

- 데카르트(1997), 『성찰, 자연의 빛에 의한 진리탐구, 프로그램에 대한 주석』,
이현복 옮김, 문예출판사.
- 선우환(2010), 「선결문제 요구의 오류를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 『철학』,
185-214.
- Leibniz, G. W., Leroy E. Loemker(ed)(1969), *Philosophical Papers and
Letters(second edition)*, D. Reidel Publishing Company.
- Moore, G. E., Baldwin, T(ed)(2013), *G.E. Moore: Selected Writings*,
Routledge.

A Critique of Moore's Proof of Outside World

Bak, Jechul (University of Seoul)

In this paper, I have defended the phenomenalism, and criticized Moore's argument of the existence of outside world. Phenomenalism is the philosophical position which claims that a statement claiming the existence of a physical object is semantically equals to the statements describing our senses. Thus, according to this perspective, our physical world can be a dream. In this paper I have defended this philosophical doctrine by providing a model, thus shown that this theory can not be easily refuted. This is the first purpose of this paper.

The second purpose of this paper is to look at Moore's argument that can be understood as a critique of the phenomenalism, and to refute that argument. Moore tries to prove the existence of outside world. That is to say, he tries to refute the argument that we could be dreaming. I have pointed out the problems of a few conceptual devices that are mobilized for a Moore's proof, and showed that his proof of the existence of outside world have serious problems. Conclusion is this: Moore was leaning on common sense, and his proof is not a rigorous demonstration. Therefore, the argument of Moore fails.

Key words: Moore, Phenomenalism, Argument, Outside world, Matter

박제철 e-mail: jechull@naver.com

외부세계 존재에 대한 무어 논증 비판 / 박제철

투 고 일	2015년 10월 13일
심 사 일	2015년 10월 29일
게재확정	2015년 11월 17일